

670년대 신라와 당의 대립과 소통

- 薛仁貴·文武王書狀의 분석을 중심으로 -

우에다 기헤이나리치카*

- I. 머리말
- II. 唐의 征討軍 파견 배경
- III. 신라의 석명과 그 함의
- IV. 타협의 계기로서 高句麗 遺民 문제의 해소
- V. 맺음말

국문초록

670년대는 신라와 당의 관계가 변화한 시기로서 중요하다. 7세기 중반 동맹을 맺은 이래로 신라와 당은 660년에 백제를, 668년에는 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시켰다. 그런데 고구려의 멸망 이후 신라와 당은 대립하게 되어 군사적으로 충돌하였다. 이것이 나당전쟁(670~676)이다.

나당전쟁 기간 동안 신라와 당은 기본적으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소통’은 계속되었다. 671년 당에서 파견된 薛仁貴는 文武王에게 서장을 보냈고, 이에 대해 문무왕 역시 설인귀에게 답신을 보냈다. 또한 672년 신라는 당황제에게 사죄의 내용을 담은 表

* 植田喜兵成智. 일본 와세다대학 문학학술원 강사 / kn-ueda@waseda.jp

文을 바치기도 했다. 그리고 675년 전쟁 종결기에도 신라가 당에 외교 사절을 파견한 사실이 중국자료 및 『三國史記』에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670년대의 양국은 군사적 충돌이라는 극단적 상황 속에서도 외교교섭, 즉 소통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러한 소통은 신라의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여겨지는데, 기왕의 나당 전쟁 연구에서는 이 문제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초기에 진행된 나당전쟁 연구는 주로 『三國史記』의 신빙성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후 나당 전쟁은 군사사의 관점에서 연구되기도 했고, 금석문의 내용을 활용하여 검토되기도 했다. 이외에 나당전쟁의 전개과정을 동아시아 정세와 관련하여 설명한 연구도 있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당이 신라원정을 계속할 수 없었던 배경으로 西域 吐蕃 정세의 변화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는 나당전쟁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다만 신라와 당 사이에 이루어진 소통의 구체적인 양상과 그것의 성격 분석에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에서는 신라와 당의 구체적 교섭 사례이자 양국의 정치적 의도가 내재된 자료로서 설인귀서장과 문무왕답서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동안 이들 서장을 언급한 연구는 많았지만, 두 자료를 총합적으로 분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우선 당과 신라가 어떠한 점에서 대립하고 있었는지를 밝히겠다. 이어서는 『三國史記』에 수록된 설인귀서장과 문무왕답서를 분석함으로써 양국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쟁점화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를 쟁점화하지 않도록 노력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670년대 후반 신라가 당과의 대립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소하려 했는지 살펴보겠다. 670년대 나당관계의 전개는 단지 서역 정세의 변화로만 설명될 수 없다. 외교 관계 개선을 위한 신라의 숙련된 소통 전략을 재평가할 시점이다.

◆ 주제어

나당전쟁, 묘지명, 보덕국, 답설인귀서

I. 머리말

소통은 고대 세계에서도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특히 동아시아 세계는 한자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으므로,¹⁾ 그곳에 존재했던 각 왕조와 인간 집단 사이에서는 漢文 書狀을 매개로 빈번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물론 한국 고대의 문헌자료에는 서장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것은 신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현전하는 신라 관련 서장의 대부분은 일본 측 문헌에 남아 있다.²⁾ 그러나 『三國史記』 문무왕 본기에는 670년대 신라와 당이 주고받은 서장의 구체적인 양상이 전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670년대는 신라와 당의 관계가 변화한 시기로서 중요하다. 7세기 중반 동맹을 맺은 이래로 신라와 당은 660년에 백제를, 668년에는 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시켰다. 그런데 고구려의 멸망 이후 신라와 당은 대립하게 되어 군사적으로 충돌하였다. 이것이 나당전쟁(670~676)이다.

나당전쟁 기간 동안 신라와 당은 기본적으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소통’은 계속되었다. 671년 당에서 파견된 薛仁貴는 文武王에게 서장을 보냈고, 이에 대해 문무왕 역시 설인귀에게 답신을 보냈다. 또한 672년 신라는 당황제에게 사죄의 내용을 담은 表文을 바치기도 했다. 그리고 675년 전쟁 종결기에도 신라가 당에 외교 사절을 파견한 사실이 중국자료 및 『三國史記』에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670년대의 양국은 군사적 충돌이라는 극단적 상황 속에서도 외교교섭, 즉 소통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러한 소통은 신라의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여겨지는데, 기왕의 나당전쟁 연구에서는 이 문제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초기에 진행된 나당전쟁 연구는 주로 『三國史記』의 신빙성 문제를 논의하였다.³⁾ 이후 나

1) 동아시아세계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西嶋定生, 『古代東アジア世界と日本』, 岩波書店, 2000.

2) 鈴木靖民 외 편, 『訳註日本古代の外交文書』, 八木書店, 2014.

3) 池内宏, 「高句麗滅亡後の遺民の叛乱及び唐と新羅との関係」, 『満鮮史研究 上世第2冊』, 1960, 吉川弘文館, 419~487쪽; John C. Jamieson, 「羅唐同盟의 瓦解: 韓中記事聚

당전쟁은 군사사의 관점에서 연구되기도 했고,⁴⁾ 금석문의 내용을 활용하여 검토되기도 했다.⁵⁾ 이외에 나당전쟁의 전개과정을 동아시아 정세와 관련하여 설명한 연구도 있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당이 신라원정을 계속할 수 없었던 배경으로 西域 吐蕃 정세의 변화를 지적하였다.⁶⁾

이러한 선행 연구는 나당전쟁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다만 신라와 당 사이에 이루어진 소통의 구체적인 양상과 그것의 성격 분석에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에서는 신라와 당의 구체적 교섭 사례이자 양국의 정치적 의도가 내재된 자료로서 설인귀서장과 문무왕답서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동안 이들 서장을 언급한 연구는 많았지만,⁷⁾ 두 자료를 총합적으로 분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우선 당과 신라가 어떠한 점에서 대립하고 있었는지를 밝히겠다. 이어서는 『三國史記』에 수록된 설인귀서장과 문무왕답서를 분석함으로써 양국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쟁점화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를 쟁점화하지 않도록 노력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670년대 후반 신라가 당과의 대립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소하려 했는지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신라의 능숙한 소통 전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⁸⁾

합의 比較], 『歷史學報』 44, 역사학회, 1969, 1~10쪽.

- 4) 徐榮教, 『羅唐戰爭史研究』, 亞細亞文化社, 2006; 李相勳, 『羅唐戰爭研究』, 周留城, 2012.
- 5) 拜根興, 『七世紀中葉唐與新羅關係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植田喜兵成智, 『新羅·唐關係と百濟·高句麗遺民』, 山川出版社, 2022.
- 6) 古畑徹, 「七世紀末から八世紀初にかけての新羅·唐關係」, 『渤海国と東アジア』, 汲古書院, 2021, 23~115쪽; 徐榮教, 『羅唐戰爭史研究』, 亞細亞文化社, 2006; 盧泰敦, 『三國統一戰爭史』,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 7) 黃約瑟, 「兩唐書薛仁貴傳」, 『第一屆國際唐代學術會議論文集』, 台灣學生書局, 1989; 金壽泰, 「통일기 신라의 고구려유민 지배」,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 上』, 一潮閣, 1994; 李昊榮, 「新羅의 對唐戰爭 原因과 그 展開」, 『月山 李昊榮의 韓國史學 遍歷』, 書景文化社, 2007, 131~135쪽.
- 8) 본 논문은 다음의 글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필 수정한 것이다. 植田喜兵成智, 「新羅による安勝の『高句麗王』『報德王』冊封と骨品制編入」, 『新羅·唐關係と百濟·高句麗遺民』, 山川出版社, 2022, 240~264쪽.

II. 唐의 征討軍 파견 배경

먼저 당이 신라와의 대립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자. 당의 입장이 잘 드러나는 자료로 674년 당이 劉仁軌를 총관으로 삼아 신라정토군을 파견했다는 『資治通鑑』의 내용을 살펴보자.

봄 정월 임오일. 좌서자 동중서문하 삼품 유인케를 계림도대총관으로 삼고, 위위경 이필·우령군대장군 이근행을 부총관으로 삼아 군사를 발동하여 신라를 토벌하게 하였다. 이때 신라왕 김법민은 이미 고구려의 배반한 무리들을 받아들이고, 또 백제의 옛 땅을 점거하고 사람을 시켜서 이를 지키게 하였다. 황제는 크게 노하여 조서를 내려 김법민의 관작을 삭탈하고, 그의 동생인 우교위원외대장군·임해군공 김인문이 장안에 있었는데, (그를) 세워서 신라왕으로 삼고, 귀국하게 하였다.⁹⁾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당 조정은 신라를 정토한 이유로 두 가지 사안을 꼽았다.¹⁰⁾ 하나는 고구려유민을 지원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백제의 옛 땅을 차지한 것이다. 실제로 신라는 고구려유민을 지원하는 동시에 웅진도독부가 설치된 백제의 옛 땅을 공격했다. 위의 자료에는 이러한 상황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기록은 어디까지나 674년의 상황을 전하는 것이다. 나당 전쟁은 이미 670년에 발발한 상태였다.¹¹⁾ 그렇다면 670년 당시 당은 신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초기 신라정토군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정토군을 파견한 명확한 이유를 살피기 어렵다. 다만 다음과 같은 기록이 주목된다.

9) 『資治通鑑』 卷202, 唐紀, 上元 元年(674) 條, “春正月壬午, 以左庶子同中書門下三品劉仁軌爲雞林道大總管, 衛尉卿李弼·右領軍大將軍李謹行副之, 發兵討新羅。時新羅王法敏, 既納高麗叛衆, 又據百濟故地, 使人守之, 上大怒, 詔削法敏官爵, 其弟右驍衛員外大將軍臨海郡公仁問在京師, 立以爲新羅王, 使歸國。”

10) 같은 기록이 『新唐書』 卷220, 新羅傳; 『唐會要』 卷95, 新羅條; 『冊府元龜』 卷986, 外臣部, 征討5, 咸亨5年2月條 등에 보인다.

11) 李相勳, 앞의 책, 2012, 59~108쪽.

이윽고 고구려의 무리들이 잇달아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 조서를 내려 설인귀를 계림도총관으로 기용하여 경략하게 하였다.¹²⁾

이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유민이 반란을 일으키자 당 조정은 설인귀를 계림도총관 즉, 신라정토군의 총관으로 기용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파견되었던 高侃·李謹行의 고구려유민정토군은 고구려유민군뿐 아니라 신라군과도 전투를 벌였다. 이외에도 설인귀의 신라정토군에 종군한 곽행절의 묘지명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¹³⁾

바야흐로 청구가 명을 어기고 현도가 재난을 일으켰다. 장군들은 공이 어릴 때부터 무술과 군략을 배웠으므로써 공을 계림도관관겸지자영총관으로 임명하도록 상표하였다. 또한 공은 압운사로 임명되었다. ¹⁴⁾

묘지명에 따르면 ‘청구’와 ‘현도’, 즉 고구려유민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신라정토군이 파견되었다고 한다.¹⁵⁾ 이상의 자료를 통해서 고구려유민의 반란과 신라 원정이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당전쟁 기간 동안 당은 신라 정토의 문제를 일관하여 고구려유민의 반란과 연관 지었던 것이다. 고구려 멸망 이후 많은 고구려유민을 포섭하게 된 당에게 있어 고구려유민의 향방은 촉각을 세우는 사안이었을 것이다.¹⁶⁾

12) 『舊唐書』卷83, 薛仁貴傳, “尋而高麗衆相率復叛. 詔起仁貴爲雞林道總管, 以經略之.”

13) 郭行節 墓誌銘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 참조. 植田喜兵成智, 「唐人郭行節墓誌からみえる671年の新羅征討軍」, 앞의 책, 2022, 16~39쪽.

14) <郭行節墓誌銘>, “屬靑丘背命, 玄菟挺災. 軍將等以公早習戎昭, 夙靜輜略, 遂表公爲雞林道判官兼知子營總管. 又奏公爲押運使.”

15) 묘지명의 ‘청구’와 ‘현도’는 구체적으로 고구려 혹은 신라를 가리키는 말로 보기보다 고구려와 신라를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일컫는 말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구절은 고구려유민의 반란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16) 당에게 고구려유민이 외교적 및 군사적으로 중요한 존재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 참조. 植田喜兵成智, 「武周·開元期の王權と百濟·高句麗遺民」, 앞의 책, 2022, 220~239쪽. 또한 이 글은 다음의 한국어 논문을 번역 및 수정한 것이다. 植田喜兵成

Ⅲ. 신라의 석명과 그 함의

다음으로는 신라가 당과의 대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살펴보자. 이 문제를 고민하는 데 있어 단서가 되는 자료로서 『삼국사기』 신라 본기 문무왕 11년 7월 26일조에 수록된 설인귀와 문무왕의 서장에 주목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신라정토를 위해 계림도총관에 임명된 설인귀는 문무왕을 문책하는 서장을 보냈고, 문무왕 역시 이러한 문책에 석명하고자 답서를 보냈다. 이 두 서장은 唐代의 여러 군사·외교 자료 중에서도 가장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며, 그 자료적 가치 또한 매우 높다.¹⁷⁾ 나당전쟁기 신라와 당의 대립과 소통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대목이다.

먼저 설인귀서장부터 검토해보자. 보다 자세한 분석을 위해 서장의 내용은 (A)부터 (F)의 기호로 대단락을 구분하고, 다시 그 밑에 숫자로 소단락을 나누겠다. 전문 번역은 편의상 생략한다.¹⁸⁾

(A) 머리말

① 【발신인·수신처】 “行軍摠管薛仁貴致書新羅王”

② 【정도와 그 이유】 “淸風萬里 … 良增歎詠”

(B) 과거의 사적

① 【백제·고구려의 신라 침략과 당에 대한 호소】 “先王開府 … 聽不勝悲”

② 【당태종의 고구려 원정】 “太宗文皇帝 … 義之深也”

③ 【당의 지속적인 원정】 “既而山海異形 … 豈不休哉”

(C) 현재의 상황

① 【문무왕 비판】 “今王去安然之基 … 豈爲智也”

② 【고구려 안승 비판】 “又高麗安勝 … 匪堪襟帶之重”

(D) 군사적 위협 “仁貴樓船竟翼風 … 此王之膏肓也”

智, 「內臣之番」으로서의 百濟·高句麗遺民 - 武周시기부터 玄宗 開元期에 이르기까지 유민 양상과 그 변화-, 『고구려발해연구』 64, 고구려발해학회, 2019, 229~259쪽.

17) 黃約瑟, 「兩唐書薛仁貴傳」, 『第一屆國際唐代學術會議論文集』, 台灣學生書局, 1989.

18) 설인귀서장의 해석은 다음의 글 참조. 植田喜兵成智, 앞의 책, 2022, 289~292쪽.

(E) 권고 “王若勞者歌事 … 王之策也”

(F) 맺음말 “嚴鋒之間 … 佇布一二”

한편 이를 수신한 문무왕은 설인귀의 문책에 석명하는 내용을 담은 서장을 작성했다. 이른바 문무왕답서가 바로 그것으로, 그 내용은 설인귀서장보다도 길고 복잡하다.¹⁹⁾ 마찬가지로 상세한 분석을 위해 (I)부터 (III)까지의 기호로 대단락을 설정한 뒤, 숫자로 소단락을 나누겠다. 전문 번역은 생략한다.²⁰⁾

(I) 과거의 경위

① 【당태종의 약속과 신라의 분투】 “先王貞觀二十二年入朝 … 仰報萬分之一”

② 【백제와의 전쟁】 “至顯慶五年 … 共平一國”

③ 【백제부흥운동과 평양으로의 군량 수송작전에 대한 공헌】 “平定已後 … 亦足矜憫”

④ 【백강에서의 전투와 웅진도독부와의 맹약】 “至龍朔三年 … 各營產業”

⑤ 【고구려와의 전쟁】 “至乾封二年 … 克成大功”

(II) 현황에 대한 석명

① 【당의 論功에 대한 불신감】 “於此 … 終無反叛之心”

② 【백제·당의 행동에 대한 불신감】 “至總章元年 … 所謀不成”

③ 【고구려유민의 반란과 웅진도독부와의 전쟁】 “至咸亨元年六月 … 夜卽來打”

④ 【당의 백제 옛 땅 처리에 관한 불만】 “至七月 … 長無後患”

⑤ 【당에 외교 사절을 파견하지 못한 이유】 “去年九月 … 敢陳不叛”

(III) 맺음말 “請總管審自商量 … 新羅王金法敏白”

설인귀서장은 (B)와 (C)에서 先王이었던 武烈王의 공적을 열거하고, 이를 칭찬했다. 이에 비해 今王인 文武王의 행동은 不孝하고 不忠한 것

19) 문무왕답서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당에 대한 도전적 성격을 가진 宣戰布告文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李昊榮, 『新羅의 對唐戰爭 原因과 그 展開』, 『月山 李昊榮의 韓國史學 遍歷』, 書景文化社, 2007, 131~135쪽). 한편 문무왕답서를 신라의 입장을 석명하는 서장으로 이해하고, 오히려 신라는 당과의 대립을 피하려고 했다는 견해도 있다(盧泰敦, 앞의 책, 2009, 245쪽).

20) 문무왕답서의 해석은 다음의 글 참조. 植田喜兵成智, 앞의 책, 2022, 292~298쪽.

으로 묘사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설인귀서장에서 신라의 배신은 추상적으로 표현될 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언급은 확인되지 않는다. 서장의 내용 중 신라의 배신행위로 꼽힌 두 가지 사안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C)①의 내용으로 신라가 이웃 나라와의 우호를 어기고, 군사를 일으켰다는 점이다.²¹⁾ 이는 670년에 신라가 웅진도독부로 進攻한 일을 가리킨 것이라 추측된다.²²⁾ 다른 하나는 (C)②에서 안승이 王者로서 적절하지 않은 인물임에도 신라가 이를 外援으로 믿었다는 점이다.²³⁾ 사실 신라는 고구려유민이 반란을 일으킨 이래 그들의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²⁴⁾ 그런데 설인귀서장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단지 안승이 어려서 중책에 감당할 수 없음과 그것에 기대려는 신라의 그릇됨을 지적하였다. 아마도 당은 신라가 고구려유민을 지원한 것과 안승의 고구려왕 웅립에 관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보다 안승의 자질을 문제시함으로써 신라의 행동을 예뉘려 비판하려 한 것 같다.

이렇게 볼 경우 추상적이라고는 하나 설인귀서장에서 언급되는 신라의 배신행위는 여타 중국자료에 확인되는 당의 신라 정토 사유에 합치된다. 따라서 나당전쟁 초기에 해당하는 671년 당시에도 당은 신라가 백제의 옛 땅을 침략한 것과 고구려유민을 지원한 것을 정토의 사유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21)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6, 文武王 10年 7月26日條, “今王去安然之基, 厭守常之策, 遠乖天命, 近弃父言, 侮暴天時, 侵欺鄰好. 一隅之地, 僻左之陬, 率戶徵兵, 連年舉斧. 孀姬輓粟, 稚子屯田, 守無所支, 進不能拒. 以得裨喪, 以存補亡. 大小不侔, 逆順乖叙. 亦由持彈, 而往暗於枯井之危. 捕蟬而前不知黃雀之難. 此王之不知量也.”

22)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6, 文武王 10年 7月26日條.

23)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6, 文武王 10年 7月26日條, “又高麗安勝, 年尚幼冲, 遺孽殘邠生人減半. 自懷去就之疑, 匪堪襟帶之重.”

24) 신라가 고구려유민을 지원했던 군사적 배경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 참조. 盧泰敦, 「對唐戰爭期(669~676) 新羅의 對外關係와 軍事活動」, 『軍史』 3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97, 1~17쪽; 植田喜兵成智, 「唐人郭行節墓誌からみえる671年の新羅征討軍」, 앞의 책, 2022, 16~39쪽.

한편 신라는 문무왕답서 (I)에서 보이듯 자신들이 백제 및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軍功을 세우고, 당의 명령에 충실히 행동하면서 충의를 다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II)에서도 신라는 설인귀가 문책한 신라의 적대 행위를 석명하며, 당조에 적대 의지가 없음을 밝혔다. 그러한 의사를 분명히 드러내듯이 (III)에서 문무왕은 당으로부터 제수받은 官職과 爵位를 사용하여 署名했다.

주목할 부분은 (II)②²⁵⁾ 및 ③이다.²⁶⁾ 여기에서 신라는 당이 문책한 배신 행위로서 백제 옛 땅으로의 진공에 대해 웅진도독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신라의 입장에서는 웅진도독부가 먼저 배신한 것이며, 신라는 非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무왕답서에는 고구려유민에 대한 내용이 거의 확인되지 않아 유의된다. 당은 고구려유민을 지원했다며 신라를 문책했다. 한편 신라는 고구려유민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굳이 재론하여 석명하기 보다, 고구려유민의 악행을 강조하고 그것을 진압하려 한 신라의 노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물론 신라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다시피 신라는 고구려유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²⁷⁾

25) 『三國史記』卷6, 新羅本紀6, 文武王 10年 7月26日條, “至總章元年, 百濟於盟會處, 移封易標, 侵取田地, 諂我奴婢, 誘我百姓, 隱藏內地, 頻從索取, 至竟不還. 又通消息云, 國家修理船艘, 外託征伐倭國, 其實欲打新羅. 百姓聞之, 驚懼不安. 又將百濟婦女, 嫁與新羅漢城都督朴都儒, 同謀合計, 偷取新羅兵器, 襲打一州之地, 賴得事覺, 卽斬都儒, 所謀不成.”

26) 『三國史記』卷6, 新羅本紀6, 文武王 10年 7月26日條, “至咸亨元年六月, 高麗謀叛, 摠殺漢官. 新羅卽欲發兵, 先報熊津云, 高麗旣叛, 不可不伐. 彼此俱是帝臣, 理須同討凶賊. 發兵之事, 須有平章, 請遣官人來此, 共相計會. 百濟司馬禰軍來此, 遂共平章云, 發兵已後, 卽恐彼此相疑. 宜令兩處官人, 互相交質. 卽遣金儒敦及府城百濟主簿首彌長貴等, 向府平論交質之事. 百濟雖許交質, 城中仍集兵馬, 到彼城下, 夜卽來打.”

27) (II) ②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신라가 고구려유민의 반란을 진압하려고 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金壽泰, 「통일기 신라의 고구려유민 지배」,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 上』, 一潮閣, 1994, 340~343쪽). 그러나 문무왕답서는 맥락상 당에 대해 석명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 기사에 쓰인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특히 『三國史記』卷6, 新羅本紀6, 文武王 10年 3월 조, 같은 해 4월 4일 조에서 신라가 고구려유민과 함께 군사활동을 전개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위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신라가 이러한 석명을 한 까닭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고구려 유민 문제를 쟁점화시키지 않으려는 전략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나아가 신라는 신라와 당이 대립하게 된 책임을 웅진도독부에게 전가함으로써, 백제의 옛 땅을 점령한 일까지 정당화하였다.

IV. 타협의 계기로서 高句麗 遺民 문제의 해소

고구려 멸망 이후 신라는 고구려유민을 지원한 동시에, 백제의 옛 땅을 공격하여 웅진도독부를 점령했다. 당 조정은 이러한 신라의 움직임을 빌미로 정토군을 파견했다. 그러나 신라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석명을 하면서, 양국 대립의 책임을 웅진도독부에게 떠넘겼다. 한편 신라는 고구려유민을 지원했다는 당의 문책에 석명을 하는 대신, 해당 문제 자체를 거론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당과의 극단적 대립을 피하려 한 신라의 외교 전략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고구려유민 문제는 당의 적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였다. 자연 나당관계에 있어 고구려유민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작동했다. 이렇게 볼 경우 나당전쟁이 종결된 676년 이후에도 신라와 당의 관계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중국측 자료에 따르면 675년 신라가 당으로 謝罪의 사절을 파견하자, 황제는 신라의 죄를 용서하고 문무왕을 재차 신라왕으로 책봉하였다고 전한다. 해당 자료만 놓고 본다면 양국의 관계는 회복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실상 당은 그 뒤로도 신라를 정토하려 했고, 그러한 긴장은 690년대까지 계속되었다.²⁸⁾

그렇다면 양국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 전환점은 무엇이었을까. 이는 보덕왕(고구려왕) 안승이 골품제에 편입된 것과 관련되어있었을 것이

28) 古畑徹, 「七世紀末から八世紀初にかけての新羅・唐関係」, 앞의 책, 2021, 23~115쪽.

라 생각한다. 안승을 비롯한 고구려유민은 당과의 대립을 상징하는 존재인 동시에, 신라에게는 일본과의 외교 관계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존재였다.²⁹⁾

681년 즉위한 신문왕은 문무왕을 이어 집권력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³⁰⁾ 그러한 정책이 진행되는 가운데 안승에 대한 처우도 결정되었다.

겨울 10월, 보덕왕 안승을 왕경으로 불러들여 소관으로 삼고, 김씨의 성을 내려 주었으며, 경도에 머물게 하고는 훌륭한 저택과 기름진 토지를 내려주었다.³¹⁾

위의 자료에 따르면 683년 신문왕은 보덕왕 안승을 왕도로 불러들여 제 3위의 관등인 소관과 왕성 김씨를 하사했다고 전한다.³²⁾ 신라 사회에서 제5위 대야찬 이상의 관등은 진골에게만 허용되었다.³³⁾ 그렇다면 안승은 진골 신분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³⁴⁾

안승의 고구려국에 대한 정책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이듬해 안승의 族子였던 대문이 반란을 일으키자 신라는 그들을 진압하여 금마군을 설치하고, 그 과정에서 고구려유민은 신라 남쪽 주군에 강제로 이주되었다.³⁵⁾ 또한 686년에는 고구려유민에게도 신라의 과등을 하사하였고,³⁶⁾

29) 鈴木靖民, 「百濟救援の役後の百濟および高句麗の使について」, 『日本歴史』 241, 1968; 新藏正道, 「天武朝の対外関係と小高句麗」, 『日本書紀研究』 20, 1996; 盧泰敦, 앞의 논문, 1997; 이재석, 「7세기 후반 報德國 존재의의와 왜국」, 『日本史學研究』 31, 2010 등.

30) 李成市, 「新羅文武·神文王代の集權政策と骨品制」, 『日本史研究』 500, 日本史研究会, 2004.

31) 『三國史記』 卷8, 신라본기8, 신문왕 3년조, “冬十月. 徵報德王安勝爲蘇判, 賜姓金氏, 留京都, 賜甲第良田.”

32) 이에 관해서 『三國遺事』 卷2, 紀異2, 文虎王法敏 條에 따르면 안승은 진골에 편입했다고 한다. “又伐高麗以其國王孫還國, 置之眞骨位.”

33) 『三國史記』 卷38, 雜志7, 職官 上.

34) 木村誠, 「統一新羅の骨品制」, 『古代朝鮮の国家と社会』, 吉川弘文館, 2004, 284~286쪽.

35)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神文王 4年 冬 10月 條. 大文의 반란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 참조. 鄭善如, 「新羅 神文王代 報德國民의 반란」, 『역사와 담론』 66, 호서사학회, 2013, 35~68쪽.

그들을 군단으로 조직해 九誓幢에 편입시켰다.³⁷⁾ 그렇게 고구려유민은 신라의 질서 속으로 편입되어갔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고구려유민은 나당관계에 있어 갈등의 요소로 작동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는 당과의 외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배려를 잊지 않으며, 소통을 계속하였다. 그러한 기조는 신문왕대에 들어와서도 유지되었다.³⁸⁾ 결국 안승의 골품제 편입은 나당관계가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신라왕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선에서 고구려유민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소환이라는 관등은 어디까지나 신라 국내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신라 왕권은 고구려왕 안승이 갖는 대외적 의미 상실케 함으로써, 신라가 고구려보다 우월한 존재임을 드러낼 수 있었다.

더불어 683년 안승의 고구려국이 소멸하면서 당을 자극하는 요소로서 고구려유민 문제는 해소되었다. 이후 신라와 당의 관계가 점차 회복되어 나간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다.³⁹⁾

V. 맺음말

앞서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필자는 신라와 당의 교섭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나당관계에 있어 고구려유민의 존

36) 『三國史記』卷40, 雜志9, 職官 下, “高句麗人位. 神文王六年, 以高句麗人授京官, 量本國官品授之.”

37) 『三國史記』卷40, 雜志9, 職官 下, 九誓幢 條.

38) 예컨대 신문왕 7년(687)에 五廟制가 성립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天子는 七廟였으나 諸侯는 五廟였다는 禮制에 따른 것이다. 五廟制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 참조. 濱田耕策, 「神宮と百座講會と宗廟」, 『新羅國史の研究』, 吉川弘文館, 2002, 20~65쪽; 李成市, 앞의 논문, 2004, 31~33쪽.

39) 713년에 봉선제를 이뤘던 당나라가 그때 신라를 견제하기 위하여 고구려유민을 활용했다는 사실이 있다. 인승의 고구려국이 멸망된 이후에도 신라-당-양국 관계에 있어 고구려유민이 중요한 존재였다고 판단된다. 690년대 이후 고구려유민을 둘러싼 양국 관계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 참조. 植田喜兵成智, 앞의 논문, 2019, 229~259쪽.

제가 대립의 요소로서 작용하였음을 밝혔다. 특히 안승으로 대표되는 고구려유민의 문제는 당이 신라를 정토하려 한 가장 큰 이유였다. 고구려 멸망 이후 많은 고구려유민을 포섭하게 된 당으로서는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고구려유민의 존재를 간과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편 신라 역시 고구려 유민의 존재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했다. 그러한 점에서 신라는 고구려유민의 존재가 나당관계에서 쟁점화되는 것을 피해야만 했다. 신라의 고구려유민 지원은 군사적인 측면에 그치지 않고, 고구려왕 책봉 등 황제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수반했기 때문이다.

이어서는 신라와 당의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에 대해 검토하였다. 신라는 당과의 외교관계가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신라 국왕의 권위를 부정하지 않는 선에서 고구려유민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신라가 안승을 골품제에 편입시킨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그 결과 고구려왕 안승은 대외적 의미를 상실한 채, 신라 국왕의 권위를 뒷받침하는 존재가 되었다. 신라와 당의 대립에 있어 가장 큰 현안이었던 고구려유민 문제는 이렇게 해소되었다.

이상으로 신라와 당의 대립하였던 670년대, 양국이 어떠한 소통을 실시했는지 검토하였다. 양국은 군사적 충돌에까지 이르렀으나, 그 과정에서도 교섭과 소통은 계속되어 외교의 단절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670년대 나당관계의 전개는 단지 서역 정세의 변화로만 설명될 수 없다. 외교 관계 개선을 위한 신라의 숙련된 소통 전략을 재평가할 시점이다.

※ 이 논문은 2023년 04월 29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05월 25일부터 06월 0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06월 08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古畑徹, 『渤海国と東アジア』, 汲古書院, 2021.
- 金壽泰, 「통일기 신라의 고구려유민 지배」,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上』, 一潮閣, 1994.
- 盧泰敦, 「對唐戰爭期(669~676) 新羅의 對外關係와 軍事活動」, 『軍史』 3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97, 1~17쪽.
- 盧泰敦, 『三國統一戰爭史』,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 木村誠, 「統一新羅の骨品制」, 『古代朝鮮の国家と社会』, 吉川弘文館, 2004.
- 拜根興, 『七世紀中葉唐与新羅關係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 2003.
- 濱田耕策, 「神宮と百座講會と宗廟」, 『新羅国史の研究』, 吉川弘文館, 2002.
- 西嶋定生, 『古代東アジア世界と日本』, 岩波書店, 2000.
- 徐榮教, 『羅唐戰爭史研究』, 亞細亞文化社, 2006.
- 植田喜兵成智, 「內臣之番으로서의 百濟·高句麗遺民 -武周시기부터 玄宗 開元期에 이르기까지 유민 양상과 그 변화-」, 『고구려발해연구』 64, 고구려발해학회, 2019, 229~259쪽.
- 植田喜兵成智, 『新羅·唐關係と百濟·高句麗遺民』, 山川出版社, 2022.
- 新藏正道, 「天武朝の對外關係と小高句麗」, 『日本書紀研究』 20, 塙書房, 1996, 291~310쪽.
- Jamieson, John C., 「羅唐同盟의 瓦解: 韓中記事聚合의 比較」, 『歷史學報』 44, 역사학회, 1969, 1~10쪽.
- 鄭善如, 「新羅 神文王代 報德國民의 반란」, 『역사와 담론』 66, 호서사학회, 2013, 35~68쪽.
- 池内宏, 「高句麗滅亡後の遺民の叛乱及び唐と新羅との關係」, 『滿鮮史研究 上世第2冊』, 1960, 吉川弘文館.
- 鈴木靖民, 「百濟救援の役後の百濟および高句麗の使について」, 『日本歴史』 241, 吉川弘文館, 1968, 30~46쪽.
- 鈴木靖民 외 편, 『訳註日本古代の外交文書』, 八木書店, 2014.
- 李相勳, 『羅唐戰爭研究』, 周留城, 2012.
- 이재석, 「7세기 후반 報德國 존재의의와 왜국」, 『日本史學研究』 31, 일본사학회,

2010, 33~52쪽.

李成市, 「新羅文武·神文王代の集権政策と骨品制」, 『日本史研究』 500, 日本史研究会, 2004, 24~49쪽.

李昊榮, 「新羅의 對唐戰爭 原因과 그 展開」, 『月山 李昊榮의 韓國史學 遍歷』, 書景文化社, 2007.

黃約瑟, 「兩唐書薛仁貴伝」, 『第一屆國際唐代學術會議論文集』, 台灣學生書局, 1989.

Abstract

Communications in the Silla-Tang War(670~676)

Ueda, Kiheinarichika

The 670s is an important period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illa and Tang: in the mid-7th century, Silla and Tang allied and overthrew Baekje in 660 and Goguryeo in 668. After the destruction of Goguryeo, however, Silla and Tang clashed, resulting in a military conflict, the Silla-Tang War (670~676).

During the War, Silla and Tang continued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In 671, the Tang dispatched Xuē Réngui to exchange letters with King Munmu. In 672, Silla sent an envoy to the Tang Dynasty to apologize, and the contents of the envoy's letter remain in the historical records, *Samguksagi*. In 675, at the war's end, Silla sent a diplomatic mission to the Tang Dynasty, which can be found in Chinese historical records and the *Samguksagi*. Thus, in the 670s, while the two kingdoms were not only in conflict, they were also continuing diplomatic negotiations, in other words, communication.

The previous study of the Silla-Tang War overlooked the aspect of Silla's strategy of communication. Less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question of how Silla communicated with the Tang Dynasty. This paper will focus on two documents, the letter of Xuē Réngui and the reply letter of King Munmu, which contain the specific negotiations between Silla and Tang and the thoughts and intentions of the two kingdoms. Although the previous studies have referred to the two letters, these studies are insufficient to analyze the letter as a whole. Therefore, this

paper will first clarify the points in which the Tang Dynasty and Silla were in conflict. Then, after examining the Tang side's historical records, this paper will examine the letter of Xuē Réngui and the reply letter of King Munmu in *Samguksagi*. This analysis will provide an understanding of what issues were disputed and what issues were avoided by the two kingdoms. It will also clarify how Silla tried to resolve the conflict with the Tang Dynasty in the late 670s.

Thus this study will show that Goguryeo's relics were an essential point of contention between Silla and Tang and that the reunion of Anseung into the Bone-rank system was Silla's policy to resolve the conflict with Tang. Thus, we can evaluate the strategic nature of Silla's skillful communication in the 670s.

keywords :

the Silla-Tang war, epitaph, the Goguryeo diaphora, the East Asia